

프랑스어 원어수업을 위한 제언 -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 교육(FLE)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CLE) 수업 사례1)

장 니 나
(부산외국어대학교)

Chang, Ni-Na. (2010). The effects of language immersion education: a case study on teaching French in French and teaching Korean in French. *Foreig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13, 164-179.

The present study aims to examine the realization of language immersion education for FLE (Français Langue Étrangère) and CLE (Coréen Langue Étrangère). Foreign Language teachers' role has been recently concerned as to find out the interaction between a teacher and a learner in language immersion education. The success of language immersion education depends on the learners' attitudes and motivation. The learners' motivation can be enhanced through the electronic sources online made by the nonnative language teachers or through the extra-curricular language activities. The findings of the present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teachers must perceive learners' first language and culture to accomplish a successful interaction. Second, the foreign language policy should favor not only English, but also other various languages as well. Third, the feedback through the self-evaluation should be followed by its purposes and types.

Key Words: immersion language education, F.L.E.(Français Langue Étrangère), C.L.E.(Coréen Langue Étrangère), interaction, effect of exposition

I. 서론

오늘날의 글로벌화에 발맞추어 대학의 학문풍토 변화의 한 부분으로 원어 강의에 대한 기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학에서의 원어강의란 기존에 실시되어 온 원어민 교수자가 담당하는 외국어 교과를 비롯하여 비원어민 교수자의 외국어교과 뿐만 아니라 비외국어교과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포함되고 있다. 원어강의 도입 목적은 세계와 학문을 공

1) 본 논문은 한국외국어교육학회 2007년 겨울 학술대회 발표원고(프랑스어 원어수업을 위한 제언: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FLE)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CLE)수업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를 수정·보완한 것임.

유하고자 하는 학술적인 이유와 글로벌 인재 교류를 위한 해외대학 교수 초청과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련한 사회적인 요인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따라 대학 종합 평가 항목에도 국제화 부문을 두어 외국인 교수 비율과 원어 강좌 비율, 외국인 유학생 비율 등을 수치화 하여 평가하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교수자의 외국어 능력을 중시하는 맥락 하에 2009학년도 교사임용시험부터 적용되는 시험 규칙에도 외국어 구사능력과 수업능력을 갖춘 교사를 선발하고자 하는 3단계 전형방식²⁾이 도입되었다. 앞으로 실용외국어 능력이 우수한 교사를 선발하기 위한 목적과 외국어교사는 원어수업이 가능해야 임용한다는 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 외국어 교육 상황에서 시도되고 있는 원어 수업³⁾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여러 교수방법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 프랑스어 원어수업의 두 모델인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 교육에서의 수업과 프랑스인을 대상으로 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수업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프랑스어 원어수업의 역할과 의미를 재조명해보고자 하나의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는 수업사례보고로서 외국어교육의 실제에 관한 분석 및 새로운 제안이 되리라 사료된다.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에서 다루는 프랑스 원어수업의 이론적 배경은 영어권과 프랑스어권 교육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오고 있으며, 국내 영어교육에서 그 활용빈도가 높은 외국어교육을 위한 몰입교육에 근거를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개념의 정의적 측면에서 원어수업의 형태가 몰입교육의 개념정의 및 형태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국내 상황에서 볼 때 영어교과의 몰입교육이 부각되면서 원어로 수업하는 것이 연속적으로 시도되었기 때문에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중심으로 주제를 다루고자 한다.

1. 외국어 교육을 위한 몰입교육

외국어 교육은 교육적 가치보다는 사회적 요구에 의해 시도되고 발전되는 경향이 있다. 몰입교육 역시도 “1960년대 캐나다의 이중 언어권인 퀘벡 주에서 영어 사용자들을 위한 제2언어로서의 프랑스어교육을 위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 정설이다(박선호, 2009). 캐나다 퀘벡의 프랑

2) 1차: 선택형 필기시험; 2차: 논술형 필기시험; 3차: 교직적성심층 면접과 수업능력 및 실기·실험 시험. 영어 교과는 1차에서 영어듣기평가, 타 외국어교과는 2차, 3차에서 외국어로 평가 실시함. (출처: 중앙일보 2007년 10월 1일자)

3) 영어 일변도의 원어수업이 진행 중이지만, 타 외국어로 진행되는 원어수업은 수업의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스어 몰입교육 탄생의 사회, 역사적 배경에 대해 연구한 논문(이병민 & 박동열, 2009)에 따르면 “16세기 정착한 프랑스인들에 의해 건설된 퀘벡 주는 100여 년간 프랑스어 영향권에 있던 후, 1763년 영국과 프랑스가 체결한 파리조약이후 캐나다 영토 전체가 영국의 지배하에 있게 되면서 퀘벡지역은 영국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영어권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후 프랑스로 귀환하지 않은 프랑스인들에 의해 오늘날까지 프랑스 언어와 문화가 교육되고 학습되고 있는 역사적 배경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회적 배경은 이중 언어 교육을 위한 언어정책을 낳게 되고 그 언어정책에 따라 외국어교육을 위한 몰입교육이 모색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몰입교육을 이해하기 위하여 특성을 중심으로 개념정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박선호(2009)에 따르면 “제2언어를 교과목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제2언어를 수업언어로 사용한다는 기본 전제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바로 국내 교과과정에 따른 교과목을 가르치며, 수업 중에 모국어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이중 언어 교육이 목표이며 제2언어 학습은 교실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몰입교육 교수자는 학생들의 모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이중 언어 구사자여야 한다.”

이로써 외국어교육을 위한 몰입교육에 대한 이해가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우리의 사례연구는 프랑스어를 교육하기 위하여 프랑스어를 사용한다는 점, 프랑스 현행 뉴스 사이트를 전자교재로 활용한다는 점과 이중 언어 교육이 목표라기보다는 제2언어의 숙달이 더 큰 목표임은 전통적인 몰입교육 정의에서 벗어난 유형이라고 생각된다. 반면 수업 중에 필요시 모국어를 부분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교수자가 학습자의 모국어와 제2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한다는 점과 제2언어 학습이 교실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은 동일한 부분이다. 그러나 프랑스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과를 가르치기 위해 프랑스어를 활용하는 측면은 몰입교육의 형태에 근접하다는 생각이 든다. 외국어교과이긴 하지만, 외국어로서 한국어라는 교과목을 위해 프랑스어가 수업의 언어가 되므로 몰입교육의 기본 전제를 따른다고 본다. 다음은 원어로 진행되는 외국어교육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더 사례와 정확한 측면을 검토해 볼 것이다.

2. 원어로 진행되는 외국어교육

몰입교육의 형태와 함께 외국어교과에서 실제 교실현장에서 실험되고 있는 수업의 형태는 바로 원어로 진행되는 외국어 교육일 것이다. 과거에는 원어만이 진행하는 수업이 주된 대상이었으나 실제 외국어활용 능력을 향상 시키고 외국어에 노출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원어인 교수자에게도 원어수업을 요구하는 교육상황이 도래된 것이다. 고정민(2009)에 따르면 영어교과의 경우는 “2000년 교육부가 영어 구사 인재양성을 목표로 TEE(Teaching

English in English)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교수자가 학생들에게 이해 가능한 입력을 제공하고 발화의 기회를 주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정책 발표 이후 일선 교육 현장에서 수업시간동안 전적으로 원어수업을 하는 경우와 모국어를 혼용하는 경우로 나누어 여러 사례들을 바탕으로 많은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위의 TEE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어로 진행되는 프랑스어 원어수업(TFF: Teaching French in French)을 소개해 보려고 한다. 원어수업이 잘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조건은 첫째, 교수자가 자가연수(l'auto-formation)를 통해 끊임없이 목표 언어-문화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이고, 학생들에게 내용을 잘 전달하여 학생들의 언어-문화 이해와 구사능력을 이끌어야 된다고 본다. 둘째, 학생들의 동기유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선정하여 적절하게 전시효과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원어수업을 진행하면 서로 이해하는 타이밍 조절이 어려워 수업 내내 활동적인 수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필요한 시청각, 영상 자료, 이미지 자료, 등을 통해 언어로 의사소통하는 방식만을 지양하여 다차원 수업이 효율적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Ⅲ. 연구방법: 수업사례 연구

본교에서 실시된 2007학년도 1학기 불어과 전공심화 과목인 시사불어수업과 프랑스기업 유로 콤퍼사⁴⁾의 한국어수업을 프랑스어 원어수업 사례로 선정하였다. 직원과 가족대상 프랑스어로 진행되는 한국어수업은 2007년 2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주당 3시간씩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특징과 사례에 관한 자료 수집으로 교재와 수업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 원어수업의 역할과 의미를 재정립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1. 교재선정 및 활용

1) FLE (Français Langue Étrangère)

먼저 시사불어 수업은 교과목의 특성상 최신의 뉴스정보를 학생들에게 전달해주기 위하여 과거의 자료를 해석하기 보다는 실시간 인터넷 뉴스전문 사이트를 전자교재로 활용하는 면이 유익하다고 판단하였다. 미국의 CNN, 카타르의 Al-jazeera와 같은 실시간 국제뉴스전문채널인 프랑스의 France24 인터넷 사이트를 전자교재로 선정하였다. 상기 교재 선정 이유는 뉴스를 통하여 실시간 정보를 획득하고 동영상을 활용한 이미지 전시효과(exposition)를 통해 학습자의 동기부여를 향상시키려는 의도다. 또한 뉴스의 특징이 객관적

4) 대한민국 군용 헬기 기술이전을 위한 사업자로 선정되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상주하는 외국 기업임.

인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으므로 국내의 해외 뉴스를 실시간으로 접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배경지식을 우리말로 쌓을 수 있는 장점도 갖추고 있는 분야다. 우리가 뉴스가 아닌 특정 분야의 내용을 처음 접할 때는 언어 해독의 어려움과 더불어 전반적인 배경지식이 없어 더욱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이다.

그림 1
France24 사이트 홈페이지⁵⁾



2) CLE(Coréen Langue Étrangère)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수업을 위해 이중 언어 학습을 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수업으로 교재는 일반적인 한국어 교재와 프랑스어권 학습자를 위한 교재로 선정하였다. 교재선정 원칙으로는 시각, 청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교재와 수업 자료 활용을 염두에 두었다. 또한 학습자의 어학 수준별 맞춤교재보다는 다양한 교재를 선택하여 각 부분의 핵심사항을 요약하고 덧붙이고 각 séance별 수업 목표, 내용, 등으로 구분하여 수업 설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어휘측면은 프랑스어를 먼저 알려주고 추가로 알고 싶은 어휘를 먼저 조사한 뒤 상응하는 한국어휘를 소개했을 때 학습자의 이해가 더 쉬웠기에 한국어로 된 교재를 첨부하게 되었다.

5) <http://www.france24.com>

표 1
사용된 교재

교재명	언어-문화영역
Premier pas en Coréen pour les français (first step in Korean for French)	회화, 문법, 문화(주교재)
Clés pour le coréen (Gateway to speaking Korean 프랑스어판)	회화
Manuel de Coréen volume 1	문법
La Corée telle qu'elle est	문화(한국소개)
Le Silence de Nim(한용운)	문화(시강독)
Guide pratique de la communication	회화 보충
프랑스어 어휘연구	어휘

2. 수업내용 및 진행방법

1) FLE(Français Langue Étrangère)

우선 주교재인 France24 인터넷 사이트를 열어 다음과 같은 수업계획안대로 진행하였다. 세부사항으로 각 주제를 구분하여 언어영역별 교수법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시청각을 통한 청취, 기사를 통한 독해 및 강독, 의견을 주고받는 상호활동을 통한 구술, 과제학습으로 팀별 주제에 대한 작문을 구성하여 언어영역별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전자교재의 단점이랄 수 있는 다소 산만하고 지루해질 수 있는 부분을 극복하기 위하여 수업을 여러 분야로 나누어 초기의 동기유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구성했다. 또한 수업의 연장학습인 실제 언어 활용을 위해 교수자와 학습자간 질의응답이 가능한 커뮤니티 사이버창구를 열어두었다. 역할은 학생들의 의문에 답하고 다음 차시를 위한 준비를 도우며 과제학습을 진행하기 위한 상호활동으로 보충할 수 있었다. 아래의 표와 같이 실제 수업의 각 séance별 교수요목으로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하였다. 과제 학습은 한 학기동안 수업 이외의 시간에 진행해야 되는 부분으로 표에는 넣지 않았다. 과제수행은 팀별 시사 주제를 정하여 인터넷을 통한 팬팔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화자를 선정한 뒤 그 주제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은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하는 것이었다. 사용되는 언어는 프랑스어와 영어를 상호 보충적으로 활용하며 서로의 견해 차이로 인하여 분쟁이 될 수 있는 정치, 종교 사항은 제외하였고 학생들의 주요관심사인 대학생활, 취업, 인문학의 미래 등을 다루었다.

표 2

각 séance별 교수요목

séance	주제와 기능
10분	프로그램 탐색
20분	메인 뉴스 청취
10분	상호활동
10분	기사이해, 강독

1단계: (10분) 프로그램 탐색-각 항목별 이동과 광고 설명,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기, 수업내용에 대한 관심 유발 목적.

위의 단계는 학습 초기 학생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호기심 유발로 동기부여를 위한 목표로 각 콘텐츠를 클릭하여 짧게 질문하고 설명하는 방식을 취했다. 기사에 중점을 두지 않고 주변 사항이랄 수 있는 광고, 속보, 등을 통해 짧은 문장 위주로 진행했다. 이 단계에서 부분적인 말하기(production orale) 능력을 배울 수 있다. 보면서 듣는 과정과 거의 동시에 말하기를 유도함으로써 학습자가 비언어적 행위를 사용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의사소통의 기회를 효과적으로 성공시키는 과정을 배우게 된다. 정확하지 않는 표현과 감탄사 혹은 비문법적인 표현일지라도 수업 도입부분에서 지적하기 보단 칭찬과 격려를 통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도전을 주고자 했다.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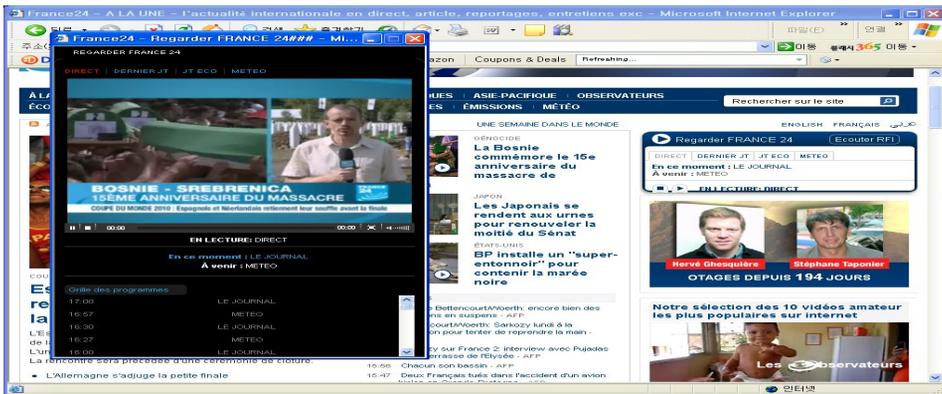
각 항목별 탐색



2단계: (20분) 메인뉴스 청취-1분 내외 뉴스를 3회 듣고 학생들이 글과 이미지를 본 것과 들은 것 전부를 바탕으로 유추하여 이해한 바를 적고 발표한 후 교수자가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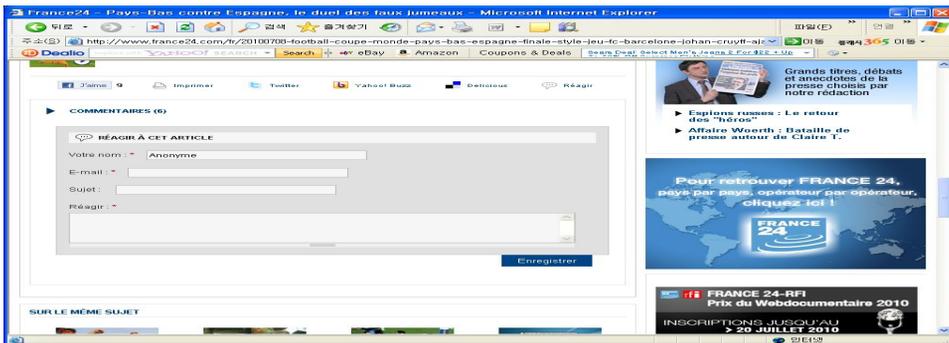
2단계는 본 학습이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으로 메인 뉴스들 중 우리나라에도 소개되어 있는 뉴스를 중심으로 공통적인 화제를 선택하여 1분 내외 분량의 뉴스를 3회 정도 듣는데, 각 회마다 학생들에게 제목정하기, 내용요약, 부분 내용(어휘, 문장)을 적을 수 있는 시간을 둔다. 그러므로 청취가 반복되는 동안에 발전되는 듣기(compréhension orale)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림 3
뉴스 동영상으로 청취



3단계: (10분) 상호활동-상호활동 항목 등을 활용. 교수자가 토론 유도, 학습자와 학습자간 학습자와 교수자간 상호활동

그림 4
의견 주고받는 상호활동



상호활동 영역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교재 활용 시 가장 효과를 주는 특성인 상호작용(interaction)이다. 교수자의 역할이 중요한 단계이며 교수자와 학생간, 학생과 학생간, 학생과 화면을 통한 상호작용이 전개될 수 있다. 초기에는 뉴스에 대한 댓글을 함께 읽어보며 단순한 찬성/반대 의견을 모으는 것으

로 시작한다. 다음으로 의견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상호작용표현(interaction orale)을 확대해 나간다. 우리나라만큼의 덧글 문화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친숙한 방식인 만큼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고 덧글의 비교를 통한 상대방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상호문화이해(compréhension interculturelle)의 장이 되기도 한다.

4단계: (10분) 기사 이해, 강독-dossier 중 시사를 주제로 흥미로운 기사를 선정하여 인쇄한 후 학생들에게 배포한다. 다음시간에 그룹별(2인1조) 발표를 유도한다. 교수자가 최종적으로 코멘트를 하면서 마무리한다.

그림 5
기사 강독



기사 강독은 일회성 기사보다는 르포(reportage)를 선택하였다. 이슈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과 비평을 함께 강독하면서 의견을 글로 표현하는 방식을 배우고 글쓰기 모델로 활용할 수 있었다. 이는 쓰기(production écrite)학습을 향상시킬 수 있다. 위의 수업 활동 준비단계로 교수자는 선정된 르포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한 뒤 집에서 미리 읽어오는 시간을 두었다. 생소한 어휘를 찾는 과정에서 주제에 대한 접근이 더욱 용이해지고 본 수업에서 읽기, 말하기를 함께 학습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 CLE(Coréen Langue Étrangère)

먼저 학습자들이 수업에서 기대하는 부분을 조사하여 철저한 학습자 요구에 부응하는 수업을 진행하고자 했다. 왜냐하면 단기간에 뚜렷한 학습목표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학습자들은 우리나라에서의 1~2년정도 거주를 목

적으로 온 경우이므로 일상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실생활접근 학습이 중요한 관건임을 알았다. 그러므로 교실 내에서의 수업과 문화 활동(activité culturelle) 항목을 병행하여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이로써, 과제(tâche) 수행을 진행할 수 있어 활동적인 수업이 가능했다. 세부적인 수업 전개는 다음과 같다.

표 3

각 séance별 교수요목

séance	주제와 기능
5분	프랑스어로 인사 나누기
5분	한국어로 인사 나누기
10분	복습과제와 과제 확인(노트+ pratiquer)
15분	문법
5분	활용
15분	회화
5분	활용
10분	문화
10분	활용
10분	질의응답

- 1단계:(5분) 프랑스어로 인사나누기-긴장완화 효과
- 2단계:(5분) 한국어로 인사나누기-수업준비에 임하는 자세 갖추기
- 3단계:(10분) 복습과제와 과제 확인-2페이지씩 한국어로 쓰기 과제와 일상생활에서 복습으로 활용했는지 여부 확인
- 4단계:(15분) 문법-프랑스어로 설명
- 5단계:(5분) 활용-학습자가 화이트보드에 나와서 문제 풀기
- 6단계:(15분) 회화
- 7단계:(5분) 활용-2인1조 마주보고 회화 연습 후 한 팀만 나와서 활용
- 8단계:(10분) 문화-교수자가 주제별로 실물자료 준비
- 9단계:(10분) 활용
- 10단계:(10분) 질의응답-수업 중 내용 혹은 일상생활에서 질문

위의 단계별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그리고 상호작용을 적용하여 통합된 수업이 되도록 하였다. 1단계 프랑스어로 인사 나누기에서는 학습자들의 모국어로 인사를 시작함으로써 긴장 완화효과를 줄 수 있었다. 2단계 한국어로 인사나누기를 통해 인사방법의 비교가 가능하므로 상호 문화를 통한 흥미 유발로 학습자의 동기부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수업이외의 시간에 별도의 개인학습이 요구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지난 시간 복습이 필요했다. 방법은 가장 핵심적인 문법 한 두 가지 사항만 언급하였다. 일상생활에서 실제

언어 사용을 했던 경험과 문화 차이에서 오는 질문을 통해 피드백을 주었다. 그리고 쓰기 부분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알파벳에 대한 친근함을 높여 주기 위해 매번 공책에 한글을 적어보는 시간을 두었다. 언어의 활용 측면에서 거리의 간판, 광고지, 등을 통한 응용이 동기부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문법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었는데 학습자들의 모국어인 프랑스로 설명하는 편이 이해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프랑스로 문법의 개념정의를 설명하고 여러 사례를 들어주면 이해가 가능했다. 문법부분은 학습자간 상호작용이 중요했다. 학습자들 중 더 빨리 이해하는 학습자가 다른 학습자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방법도 효과가 좋았기 때문이다. 문법을 활용하기 위해 재미있는 그림을 게시하고 화이트보드에서 풀어보는 방식을 취했는데 적극적으로 임하는 학습자들의 태도가 인상적이었다. 회화단계는 가장 흥미 있어 하는 부분으로 일상생활에서 활용을 해 보고 싶어했다. 실제 경험할 수 있는 문화 활동을 두어 언어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예를 들면 전화통화를 배우는 과(leçon)에서는 실제 관심 있는 기관(우체국, 주민 센터, 학원, 상점, 호텔예약, 식당예약 등)에 전화를 걸어 문제를 해결해보기도 했는데 긴장감을 주면서도 매우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이었다. 문화 단계는 이전 수업에서 학습자들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을 교수자에게 알려주면 교수자가 문화 학습용 실물을 준비해오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듣기와 말하기 방법으로 언어 상호작용을 통합적으로 활용했다. 사례로 한복과 고무신은 실제 착용해보기도 하고 실물이 어려운 경우는 대형마트 광고전단지 그림을 활용하여 설명하였다. 이 부분은 야외에서 직접 체험하는 문화 활동의 준비단계로 활용할 수 있었다. 마지막 단계인 질의&응답은 문화적 오해에서 비롯된 에피소드들을 언급하며 토론을 통해 상호문화이해의 시간이 되었다. 대체로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측면이 높았으나 설명 전에는 오해가 될 만한 부분들도 있어서 교수자의 객관적인 시각이 돋보여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한다. 이를 위해 교수자가 이중 언어를 구사하면서 상호문화를 잘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도움이 될 듯하다.

IV. 연구결과: 원어수업의 역할과 의미

1. 분석결과

지금까지의 프랑스어 원어수업 경험을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어수업은 캐나다를 중심으로 한 제2언어 학습인 FLS(Français Langue Seconde)수업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유형으로 몰입(immersion)을 위한 언어교육방식이다. 그러나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인 FLE수업에서도 필요한 일부 교과목 혹은 부분 원어수업의 효과적인 유형으로 적용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목표언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현저히 적고 실제

생활에서 목표언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적은 곳에서는 수업시간동안에 목표언어를 최대한 듣고 말하고 쓰는 상호작용을 통한 통합언어-문화 학습이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수자의 일방 통행식 주도수업은 지양해야 되며 학습자의 언어-문화 능력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상호작용에 신경을 더욱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되었다. 원어수업의 역할이 단순한 목표언어의 청취로만 활용된다면 기존의 원어민 수업에서와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비원어민 교수자의 원어수업은 학습자의 모국어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더욱 높은 효과를 준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심리적인 안정감과 더불어 유사한 문장을 말했을 때 교수자가 학습자의 문화를 이해한 바탕에서 다음번 문장을 제시해 줄 수 있고 하고자 하는 말의 표현을 보충하여 도움을 줄 수 있어 학습자 입장에서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듣고 말해볼 수 있는 환경이 더 가능하기 때문이다. FLE, CLE 두 다른 수업을 통해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으로 교수자가 학습자의 언어와 문화를 알고 있다는 것은 외국어 학습의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단순히 외국어는 원어민에게서 배워야한다는 사고는 오늘날 다양한 매체를 접할 수 있는 글로벌 환경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원어민만이 알고 있는 표현과 발음은 멀티미디어 환경 하에서 학습하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학습자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없거나 낮을 경우 상호문화 이해 차원이 생략된 채 교수자와 학습자간 소통의 공간이 좁을뿐더러 학습의 효과에도 의문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어와 문화를 분리하기 어렵듯이 원어민 교수자의 한국어-한국문화에 대한 연수는 지속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다국적 기업의 외국진출확대와 외국인 유학생 증가로 인하여 외국인 학습자의 모국어로 진행되는 한국어 수업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프랑스어 원어수업의 기회도 확대될 것이라는 생각한다. 우리가 원어수업을 외국어교과에서 활용할 수도 있지만 글로벌 환경하의 입국하는 외국인의 수가 증대됨으로써 외국어를 수업언어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어 일변도 언어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언어의 몰입교육이 요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확대해서 살펴보면 다문화 사회라는 말은 익숙한 표현이 되었듯이 이민자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표현해주는 방식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수업이 진행된다면 훨씬 더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원어수업에 있어서 평가를 통한 피드백의 몫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학습자 스스로 평가하는 자가 평가와 교수자 스스로 평가하는 자가 평가, 학습자와 교수자간 평가가 이루어져서 더 나은 수업 차시로 진행되기 위해 매 수업마다 평가의 항목을 두는 것이 좋다. FLE의 경우는 교수자와 학습자의 모국어 사용이 극히 적은 상황을 전제로 간혹 소통의 부재로 수업에 흥미를 잃어버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교수자는 반드시 수업 말미에 본 수업의 평가

항목을 마련하여 기초적인 피드백을 마련하는데, 자칫 그 평가가 점수화되어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단순한 다음번 차시를 준비하기 위한 피드백 정도의 테스트로 활용하면 학습자에게도 부담이 덜할 것이다. 학습자 역시도 간단한 평가 항목을 체크함으로써 스스로 본 수업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도를 확인해 볼 수 있어 연계하는 수업이 된다. CLE 경우에는 조금 다른 입장인데, 학습자의 모국어로 진행되는 수업이라 자칫 목표언어를 덜 배우려는 경향을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수자의 입장에서 프랑스어 원어 수업이므로 학습자의 외국어수업 초기단계에 필요한 내용으로 활용하면 더 좋을 것이다. 프랑스어와 한국어의 상이한 언어군 에서는 초기 학습에서 학습자의 모국어로 설명해주는 측면이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특히, 문법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했다. 그러나 학습의 중간단계부터는 학습자의 모국어 사용 빈도를 줄이고 목표언어 빈도를 늘려가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효과적이었다.

결론적으로 원어수업의 의미와 임무는 상호작용을 통한 의사소통 중심의 수업 효과를 기대하기 위한 것이다. 학습자의 학습 동기와 의지 증진, 실제 외국어 활용 상황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연습과 활용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말할 수 있겠다. 또한 교수자 차원에서는 원어수업의 역할이 수업준비와 진행, 자가 평가의 피드백을 통하여 외국어 교사로서의 자아실현, 자가 연수를 제공한다. 교수자는 가르치는 학습자라는 입장으로 수업을 준비하고 전개한다면 학생들에게도 분명 도움을 줄 수 있는 원어수업의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2.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연구방법상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음을 밝혀둔다. 첫째, 프랑스어 원어수업에서의 어려운 점, 원어수업의 효과, 세부적인 교재분석, 오류분석, 교사의 담화전략 등으로 주제를 세분화하여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심도 있게 다루지는 못했다는 점이다. 차후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3. 연구의 의의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프랑스어 교과에서는 원어수업이 전체적이거나 혹은 부분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과에서 프랑스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프랑스어 원어수업 역시도 많지만 많지않지만 글로벌사회의 학업 및 직장의 인적이동으로 인하여 학습 수요가 있는 수업일 것이다. 두 교과 모두 비원어민인 교수자가 프랑스어로 수업을 한다는 상황은 동일하지만 학습자 입장에서는 비원어민 학

습자의 경우와 원어민 학습자라는 상이한 상황임을 전제로 다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 보면 원어수업이라는 공통점에서 출발하여 원어수업이 비원어민 학습자에게는 어떠한 역할과 의미가 있고 원어민 학습자에게는 어떻게 도움을 주며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교수와 학습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평가를 통한 피드백을 통해 학습모형을 구축해 보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이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교육목표, 교육 내용의 선정과 구성, 교수-학습의 형태와 평가 영역이 조화롭게 맞물려 진행될 때 교수와 학습의 효과가 높아질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앞에서 기술했듯이 본 연구에서는 두 수업 유형을 간략하게 비교하고 각 수업의 진행 교수요목을 바탕으로 프랑스어 원어수업의 상황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로 얻게 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자와 학습자간, 학습자와 학습자간 상호활동을 기대하였고 부분적으로 그 기대에 부응했다고 생각한다.

둘째,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염두에 두고 학습자에게 도움 되는 수업, 더불어 교수자에게도 유익하고 현실적이며 바람직한 한 방향으로서 원어수업이 필요하다.

외국어교육에서의 원어수업은 우리나라처럼 외국어를 실제생활에서 사용할 기회가 집중적이고 제한적인 언어사회상황과 실제자료와 원어민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언어교육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이라는 가정 하에 실행되어 온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실제 수업에서 교수법으로 활용하기에는 이로운 점만큼이나 문제점이 많다. 이로운 점으로는 원어가 모국어에 가까운 이중 언어 교수자가 아닌 이상 교수자가 수업을 준비할 때 수업 내용과 언어 능력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므로 업무가 과중되는 경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형식과 내용이 잘 갖추어진 제대로 된 원어수업이라면 수업준비 자료충실도 면에서는 효과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학습자입장에서는 수업내용을 더욱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동기부여를 향상시키는 환경은 될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원어를 활용하는 수업만으로 그친다면 학습자들에게 과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학습 효과가 진행되리라는 보장에는 의문이 든다. 그러므로 원어수업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드백이 더욱 필요한 수업일 것이다. 이에 교수자는 의례적으로 실시되는 강의평가기외에 원어수업이 종결된 후 별도의 항목을 기재한 강의평가를 통해 교재연구 및 올바른 수업 모형을 부단하게 개발해야 된다. 첫째, 학습지도안을 검토하여 교수자가 계획했던 교수요목이 달성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교수자에게도 부담이 되는 원어강의가 교수자의 언어능력 향상에만 의지하는 강의일변도의 수업 진행보다는 학습자들에게 과제를 제시하여 학습자 역시도 수업중에 원어를 사용해볼 수 있는 과제

중심 교수요목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강의 평가의 필수라고 할 수 있는 수업관찰에 있어 필답식의 평가를 지양하고 교내 교수법지원센터⁶⁾에 문의하든지 혹은 개인적으로 수업을 촬영하여 분석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실제 수업에서 계획안에 맞추어 일사천리로 진행하다보면 수업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여 객관적인 관찰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영상 촬영을 통해 분석하다보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습관, 오류를 교수자 스스로 발견하여 성찰하고 더 나은 수업 모형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는 마지막 수업 차시에서는 촬영했던 수업 동영상을 학습자들과 함께 관람하고 서로 수업에 대한 평가를 필답이 아닌 실시간으로 논의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교수자의 시선만으로 수업을 평가하기 보다는 다양한 학습자의 시각을 곁들이면 더 나은 수업 평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교수-학습활동인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교수법적 효과를 가미한 원어수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교수자는 열리고 깨어있는 사고를 지녀야 부족한 수업을 조금씩 보충하여 학습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더 나은 수업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정민. (2009). 영어로 진행되는 중학교 영어수업에서 시작 움직임과 후속 움직임을 중심으로 살펴본 교사-학생 상호작용. *외국어교육*, 16(3), 377-400.
- 김지혜, & 표경현. (2009). 영어몰입학습 프로그램의 다면적 평가를 통한 목표의 재설정. *외국어교육*, 16(2), 191-218.
- 김진수. (2004). *프랑스어 어휘연구*. 서울: 삼지사.
- 김현주. (2009).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프랑스어 듣기능력 향상방안. *외국어교육*, 16(1), 373-398.
- 김현주, & Mesini, P. (1996). *Le Silence de Nim*(한용운). Éditions Autres Temps.
- 박선호. (2009). 초등학교 몰입식 영어교육에 대한 이해 및 인식 연구. *외국어교육*, 16(2), 131-160.
- 심승자, & Fabre, A. (1997). Manuel de Coréen volume 1. Langues & Mondes L'asiathèque(Langues-INALCO).
- 윤석만, & Milhaud, M. (3rd ed.). (2003). Clés pour le coréen(Gateway to speaking Korean 프랑스어판). 서울: 문예림.

6) 본교의 교수법지원센터에서는 신청만 하면 최신기자재를 활용한 수업 동영상 촬영을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에게 사전 동의를 거쳐 진행하고 차후 교수법지원센터 소속 전문가들의 분석결과를 알려주는 시스템이 개발되어 성황리에 활용되고 있다.

- 이병민, & 박동열. (2009). 캐나다 퀘벡의 프랑스어 몰입교육 탄생의 사회, 역사적 배경, *16*(1), 399-430.
- 이숙자. (2003). *Premier pas en Coréen pour les français: First step in Korean for French*. 서울: 민중서림.
- 최희재. (2010). 교수·학습 절차로서의 '과제'에 관한 고찰-행위중심접근법을 중심으로-. *프랑스어문교육*, *33*, 83-101.
- Chamberlain, A., & Steele, R. (1996). *Guide pratique de la communication*. Le Service coréen d'information pour l'étranger. La Corée telle qu'elle est. 서울: 삼화출판사. (Original work published 1989)
- Jeanmaire, G. (2006). Analyse des fautes typiques des apprenants Coréanophones lors de l'apprentissage du FLE. *프랑스어문교육*, *22*.
- de Pouzilhac, A., Giret, V., & Ripamonti, A. (n.d.). *News pages*. Retrieved from <http://www.france24.com>.
- Yun-Roger, S. (2007). Les unités de compte et de mesure dans l'enseignement du Coréen Langue Étrangère aux apprenants français: de la théorie à l'enseignement. *프랑스어문교육*, *24*.

장이나

부산외국어대학교 지중해지역원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동 석포로 15가

전 화: 051) 640-3595

이메일: cnn@pufs.ac.kr

Received on July 16, 2010

Reviewed on Oct 21, 2010

Revised version received on Nov 12, 2010

Accepted on Dec 3, 2010